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### 대형재난보험 운용방안 발표 임박

- 최근들어 대형재난 빈발로 인명피해가 극심해지자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(이하 보감회)는 ‘대형재난보험 운용방안’을 완성해 국무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.
  - 최근 중국남부 및 동부지방의 폭우와 광동성 연해지역의 태풍으로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 빈발로 인한 피해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음.
  - 국무원에 제출된 대형재난보험 운용방안은 전체 지역을 농촌과 도시로 나누어 관리하며, 농촌은 농업보험을 중심으로 농작물, 가축, 지진, 홍수 등의 대형재해를 보장하고 도시는 주택지진보험과 같이 주로 주민들의 재산손실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임.
  
- 민간보험이 대형재난 발생 시에 적절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감독 당국 및 보험업계는 관련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.
  - 선진국들의 경우 재난사고로 인한 경제손실 보상으로 보험이 통상 30%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개인이 각각 60%와 10%를 부담하고 있으나, 중국은 2008년 쓰촨 대지진 때 보험권이 보상한 금액이 전체 피해액에 1%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남.
  - 또한 민간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대다수 보험상품은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, 손해보험상품도 특정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중국은 대형재난 위험을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보험회사나 보험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임.
  - 이에 보감회는 쓰촨 대지진 발발 후 본격적으로 민간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대형재난보험 운영방안을 준비하기 시작했으며, 국영재보험회사인 중국재보험그룹도 미국위험관리해결방안공사와 공동으로 재난위험 분석모형을 개발해 지진보험 효율 및 재보험 비율산출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험업권의 대형재난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음.

(중국경영보, 8/4)